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Burnout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최혜라, 이자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Choi Hyera, Lee Jayoung*

Seoul Cyber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Military and Police
Counseling*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그리고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중 학업지연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참여자들의 사이버대학 참여 동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283명의 사이버대학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지연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대학 참여 동기 수준에 따라 학업지연의 역할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 서론

최근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대학생들의 수가 100,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중도탈락률 또한 약 16%에 이른다. 이처럼 높은 중도탈락률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만, 일과 학업을 같이 해야 하거나 혼자 공부해야 하는 등의 환경이 학업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1]. 학업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학업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되는 학업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을 제 때 수행하지 못하고 미루는 학업지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학업지연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있는 A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총 28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2.1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김재엽 등[3]이 기존 척도를 수

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2.2 학업지연 척도

학업지연 척도는 Aitken[4]의 학업지연척도(Procrastination Inventory)의 한국 대학생 버전을 사용하였다.

2.3 학업소진 척도

학업소진 척도는 Schaufeli 등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의 한국판[5]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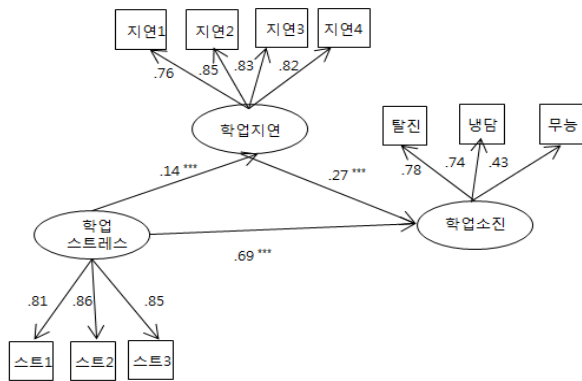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그리고 학업소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4, p<.05$; $r=.52, p<.01$; $r=.35, p<.01$),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지연과 학업소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변인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
학업스트레스	-		
학업지연	.14*	-	
학업소진	.52**	.35**	-

2. 모형 검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학업지연의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집의 크기에 민감한 X2/df를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모두 타당한 모형의 기준에 충족되었다. 즉 RMSEA는 .098로 보통 적합도였으나, CFI와 TLI는 각각 .942, .915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이 관찰변수가 적은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모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학업지연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 p<.05$).



▶▶ 그림 1.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간의 경로 모형

3. 동기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 간의 관계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그리고 학업소진 간의 관계가 사이버대학 참여 동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표 2. 와 같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이버대학 참여 동기의 수준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다집단 분석을 통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학업지연이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2.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Model	X2	df	CFI	TLI	RMSEA	ΔX2/df
자유모형 (unconstrained)	153.27	64	.940	.916	.070	2.40
측정가중치(measurement weights)	163.78	71	.938	.921	.068	2.31
구조공분산(structural weights)	166.53	74	.938	.924	.067	2.25
측정잔차(structural residuals)	170.03	77	.938	.926	.066	2.20

그 결과 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학업지연이 간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집단별 모수 추정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S.E.)	
	낮은 동기	높은 동기
학업스트레스 → 학업지연	.12*(.12)	.20*(.12)
학업스트레스 → 학업소진	.68***(.65)	.75***(.95)
학업지연 → 학업소진	.19*(.43)	.28***(.54)

IV. 논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에서 학업지연의 역할을 검증한 결과, 학업지연은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학업을 지연이 발생하고, 이어 학업소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사이버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지연하지 않도록 지도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대학의 참여 동기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참여동기가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즉 사이버대학에 대한 참여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학업을 지연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지연 외에 다른 중요한 변인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대학의 참여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버대학은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예방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울 때 사이버대학생들의 참여동기 또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생들의 참여 동기의 양적인 측면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 동기의 종류에 따라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면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1] 방기연 “기혼 여성이 사이버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면서 겪는 경험”. 한국교육, 제 40권, 제 3호, pp.1-26 2013.
- [2] 이수민, 양난미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 26권, 제 2호, pp 1-21, 2011.
- [3] 김재엽, 이근영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17권, 제 5호, pp. 121-149, 2010
- [4] Aitken, A. R., & Stephens, J. M. “Academic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learning online”, Internet high educ, Vol. 12, pp. 146-151. 2009.
- [5] J. Lee, A. Puig, Y. Kim, H. Shin, and S. Lee., “Academic burnout profiles in Korean adolescents”. Stress Health, Vol.26, No.5. pp. 404-416, 2010.